

AUTHOR 한명동

TITLE 개혁주의 교회 건설자

IN 고신대학보
(2-3, 1975): 18-22.

교회와 선교의 참된 통일에 대한 신학적 통찰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선교 각성은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p. 14).

성경적이고 기독교 전통적인 선교관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국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미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교회들을 세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계획이 높임을 받는데 있다.

그런데 현재의 선교의 위기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자는 4가지 이유를 말한다. ① 선교는 세계적 차원과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서구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왔다는 점. ② 기독교는 부분적이거나 저화 미기독교 국민들의 국가주의적 반서구세력에 휩쓸리고 말았다는 점. ③ 근대서구신학이 아시아의 종교와 공존 또는 혼합종교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 ④ 정치-사회적 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본적 종교 문제를 다루어 버리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④ 즉 모든 근본적 종교 문제를 정치-사회적 관심으로 다루어 인해서 종교는 종적 즉 하나님과 인간관계보다는 형제 즉 인간과 자연(세계)으로 저락시키는 그런 선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선교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하는 선교활동이고

둘째는 국제선교협의회가 순수한 신학적 기초와 새로운 세계교회지선교양상을 성취하려는 노력이고

셋째는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이 현대세계운동에 발맞추어 전적으로 새로운 선교이해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W.C.C.와 세계선교협의회가 합해서 W.C.C.안의 선교연구회, 전도 연구회의 하는 일이다.

위의 3가지 대처하는 방법중에 둘째는 세계에 흡수되었고, 세계는 복음내용을 정치-사회관심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저자는 첫째, 즉 보수적 복음지선교방향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따른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있던 국제외국선교협의회(IFMA)와 복음주의 외국선교협의회(EFMA)가 합해서 1966에 휘튼 대학을 열고 휘튼선언서(Wheaton Declaration)을 선포한 것과 우연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저자는 W.C.C. 제4회 Uppsala 까지 따라 갔다가 거기서 그들의 신학적 선교이해, 선교의 목표를 보고 실망하고 그는 독일의 선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Frankfurt Declaration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책자야 말로 오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방향을 바로 잡는 중요한 암시를 주는 귀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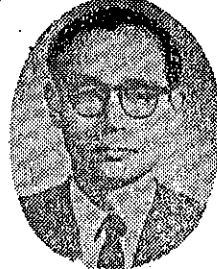
.....이 글은 본 대학 설립과 성장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 해 온 한 명동*
.....목사님이 지난 2월 20일에 있었던 제29회 졸업식에서 행한 설교이다.
.....비단 졸업생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목회자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주*
.....는 말씀이기에 여기 전제한다.<편집자>.....

개혁주의 교회 건설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26-27—

한 명 동*

1. 개혁주의 교회(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의 의미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교회내의 한 특수한 교회들에 대한 총칭적 명칭이며 이는 루터파와 세례문자에 대한 구별된 명칭이다. 이 개혁주의 교회는 칼빈이 개종하기 전 루터운동과는 별개로 쾰른리, 파렐 등으로 말미암아 불란서, 스위스 등에서 시작된 개혁운동이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개혁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파에 대하여 구별하는 명칭이며 저들 개혁주의자들은 자신과 희망에 넘쳐 이 운동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1) 개혁주의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기를 부절히 반성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비추어 매일 매일 회개하며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나의 신앙과 생활의 불순정, 세속적, 죄악적, 육적 요소에 대하여 호리도 용납함이 없이 절단하며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적 목표이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고" (갈라디아 5:24) 말씀 위에 자기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노력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을 하였으며 빌립보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잠긴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 가노라"고 말씀 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부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와, 개혁과, 전진을 강조하였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49:20) 말씀에 의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이 가장 사나운 자이며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거리가 먼 자이다. 우리

2. 개혁적 교회건설 개혁주의 교회는 부절히 개혁해 나가는 개혁적 교회이다.

우리의 목표는 개혁적 교회건설에 있는 것이다.

는 죽는날 까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말씀의 요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 개혁에 분단히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2) 교회 자체의 신앙적, 생활적 자기 반성과 개혁이 또한 있어야 하겠다.

지상교회는 분명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16:16)로 믿는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움을 입어"(에베소 2:20)야 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열두줄"(왕상 18:31)로써 계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지상교회는 분명코 그리스도의 몸으로(에베소 1:23), 지상의 금춧대로(제 2:1),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마 5:13), 산 위에 세운 돌리(마5:14)로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지상교회가 성경에 부합치 못한 요소, 말씀 이외의 요소가 교회안에 침입할 때

우리는 생명 바쳐 싸워야 하며 말씀의 기운을 붙어 붙어 부절히 교회의 정화, 교회의 개혁에 제물이 되는 희생적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교회안에 있는 모든 합리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교권주의, 거짓, 부정, 불의, 부패를 과감하게 근절하고 말씀의 교회만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 사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지상의 신앙생활이며 교회생활이었다.

이 시대는 회의주의의 부제시대인듯 하다. 우리는 교회의 부패요소를 절단하고 개혁하는 데 일심해야

한다.

(3) 교회의 근본적 개혁은 먼저 지도자들의 근본적 개혁에 있으며 국민의 근본적 개혁은 교회의 근본적 개혁에 있는 것이다.

루터와 칼빈의 개인의 근본적 개혁은 중세기의 개혁으로 발전하였다.

타인의 눈에 티를 발견하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발견하여 뽑는 데 과감하자.

타의 개혁을 촉구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개혁이 더욱 시급하며 또한 중요하다.

한 사람의 절절한 개혁만 있으면 그것은 곧 이 시대의 전체적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이 시대의

개혁의 불이 누구의 가슴에 불기 시작할 것인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눅 12:49) 얼마나 이 시대의 축복이겠는가? 교역자의 부패는 교회의 부패,

국가의 부패로 발전한다. 이사와와 같은 교역자의 회개와 개혁이 진실히 요구되어 지는 시대이다.

3. 성경 중심의 교회건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주의 교회이며(교집 4:6) 성경 중심의 교회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의 한 사람인 프랭클링은 일찍이 종교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 신뢰하는 것이 거짓종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거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이다"라고 하여 순수한 성경주의를 개창하였다.

개혁주의 교회의 출발점은 어떠한 유명한 인물이나 역사상의 위대한 산물에 두지 않고 오직 성경에다 두었다.

개혁주의 교회의 특색은 성경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가 정통적으로 강력하게 견지해 내리오는 전통적 사상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현재적인 계시의 역사적 증보물로 확신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는 성경이다.

성경 이외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 인류와, 전 개인에게 증보 전달하는 불멸의 책이다.

성경만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에 입각하고 성경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이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건설되어 가며, 개혁되어 가며, 완성될 교회이다.

진정한 기초를 직접 성경에다 두는 것이 개혁주의이며 전성경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인간의 관념과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도, 요사이 한국에서 한창 유행되고 있는 인간의 종교체함을 중시하는 신비주의도

개혁주의의 개혁이 더욱 시급하며 또한 중요하다.

한 사람의 절절한 개혁만 있으면 그것은 곧 이 시대의 전체적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이 시대의

절저히 배격하면서 직접 성경에서 얻는 신앙적 확신에서 사고하며 감동하며 의지하며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적 입장이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전생활을 성경에 합치시켜야 한다.

성경의 독점적 권위를 견지하는 성경적 교회를 건설하자.

현대교회의 속화가 성경을 떠나 인간의 이성 인간 체험에 치우쳐 인간 중심으로 행동하는 기기에 일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성경을 떠나 사고하며 행동하고자 하니 인간은 더욱 부패하며 현대교회의 속화는 더욱 심하게 진다.

현대교회는 성경을 자신의 비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는데 도구로 삼는 자 많다.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교권욕을 충족시키는데 이용물로 삼는 자 많다.

현대교회는 성경 위에 확실히 서 있는가? 현대 교인들이 성경안에서 사고하며 신앙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는 선지 사도의 더 위에 세워져 있다.

오늘의 교회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목회자와 설교자는 내 자신이 먼저 성경화 되어야 하겠다.

내 언행과 내 감정, 내 태도, 내 행동이 성경화 되어야 하겠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인하는 현대교회 신앙사상은 분명코 현대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개혁주의 교회건설에 매진하자.

4. 하나님 중심의 교회건설

개혁주의 교회건설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찍이 윌필드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는 무신론적 자연주의와 유물론적 또한

비신론적 진화론이 극심한 시대이다.

즉 우주 만물의 보존과 목적이 하나님의 성수에 좌우되어 있음을 무시하고

있는 시대이다.

인간의 교만, 인간능력의 자만, 인간 이외의 실존자의 의사를 무시하며 죄인

의 신분은 망각하고 인간성은 선하나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알고 있는 광적인 시대이다.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금력의 인식, 명예와 물질문화, 과학의 만능을 자랑하며, 생산과 산업개발로 인한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하여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인간을 완전히 물질화시키고 있는 과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이한 시대이다.

더욱이 인간 이성을 왕으로 아는 합리주의, 인간 체험을 왕으로 아는 신비주의, 현대 신학계를 풍미하고 있는 신정통주의, 사실론, 상황윤리, 세속주의, 타협주의, 자본주의적 유물사상이 교회 안에 깊이 침입하여 태한 백성이라도 유혹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고자 하는 말세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때에 인체의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를 확신하며 그 지배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자존자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 의존하여야 하겠다.

에민한 죄악감에서 길이 자신의 무가치를 의식하면서 이를 주장하며 날마다의 생활에 그대로 질친 하여야 하겠다.

만물이 그에게 속하고 만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함을 확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만이 만사의 원인을 믿고 우주의 종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어 질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여야 하겠다.

개혁주의자는 우리의 전 사고, 전 감정, 전 행동을 부절히, 하나님께 의존하며, 복종시키며,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 타락성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섭리를 확신하고 생활하는 자가 개혁주의자이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어떠한 조건도 부정하고(인간의 공덕, 행위, 성격, 능력, 근거, 원인, 동기, 장소 등)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 위에만 나의 영혼을 던져 맡기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이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리면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므로 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오직 여호와 만을 앙망하면서 걸어

가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자세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나와 교회의 전부로 보시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교하며 감정하며 의지하며 신앙하며 또한 행동하며 봉사하며 설교하며 행정하며 목회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과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복되어 있는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의 교단에 과연 하나님만이 주장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교회 안에 인간 육이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한가? 교회 안에 모략, 음모, 세속적, 정치적 냄새가 없는가? 노획안에 종파안에 정치적 음모는 없는가? 만일 있다고 하면 그 누구의 알면, 체면, 정실을 보지 않고 단연코 제거해야 하겠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한 구석에 몰아 넣어 두고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 없는 목회를 하고 있거나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 목회 성공에 더 관심을 쏟고 있거나 아니한가? 교회부흥을 내목회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있거나 아니한가? 교인심방을 하나님 양육의 심령 양육보다 교인 숫자 확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거나 아니하는가? 목회는 목사의 직업이 아니며 사업이 아니다.

교회는 목사의 직장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목회, 사업성공의 입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나 아니한가? 오늘의 교회안에 교역자의 목회에 하나님 부재시대가 온 것 같다. 과연 양육자에게 예수만 주고 있는가? 하나님만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중심으로만 목회적으로 목회를 하며 교회를 건설하자. 모여드는 양육자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도록 보여 주는 목회를 하며 교회를 건설하자.

인간의 모략과 음모가 가득찬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를 건설하자. 칼빈은 그의 개네바 목회에 있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의 목회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모든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심판대 앞에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자각시켰다고 한다. 그는 1564년 그의 지방으로 자기의 소망없음을 의식하였을 때 제네바 시의 목사들과 만나 "나의 절절에는 내 자신 불만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뿌리가 내 마음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방종과 불경건의 생활이 틈에 배인 제네바 시민들은 맹렬히 칼빈의 목회 방침에 반대하였다. 1546년 1월 화투 제조업자이며 자유주의자인 파엘리오라는 사람은 칼빈의 인격적인 교회 비규와 그 실행 때문에 그의 사인이 점점 쇠퇴해 감을 보고 칼빈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복언을 가 하여 맹렬히 반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임민주의를 취했다.

또한 패란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칼빈의 재차귀환에 전력하였고 또한 강력한 칼빈의 지지자로서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과 친척은 성적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엄격히 감시하고 여전히 임민주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패란은 칼빈의 강제가 되어 그의 제네바 개혁운동의 악전고투 기간 전부에 그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 사건은 칼빈이 목회자로서 그의 내적 고부의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패란은 칼빈에게 대하여 제네바에 다시 오게한 그 공도 무시하고 엄벌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비난 공격 반발 하였다. 설혹 나에게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제네바로 다시 오게 한 공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까지 할 수가 있느냐? 너무 과하다고 하여 많은 반발과 반대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생활에 대하여는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었다. 방종생활 그대로 하면서 너그럽게 취급해 달라는 것이다. 만일 그가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끊었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생활은 계속하면서 만반 하였다. 칼빈 선생은 여기에 대해

여 일보의 양보도 없고 일보의 타협도 없고 위축도 당하지 아니했다.

만일 칼빈이 그를 유공자라고하여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칼빈은 못 되었을 것이고 오늘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혁주의 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괴롭고, 외롭고, 한 없는 고통이 되었지만 그의 피부와 뼈가 상점할 만치 심혈실의 표본과 같이, 바작 마를 만치 수고를 한 결과는 오늘날후대에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칼빈이 양보를 했다고 하면 칼빈은 칼빈이 아니었을 것이고 개혁주의 교회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제네바에서 오직 제네바에 진정한 말씀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순결한 교회건설에만 전력하였다.

제네바 시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전력하였고 교인들의 심중에 죄악적인 것, 불경건, 방종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흠없고, 티없고, 주름잡힘이 없는 거룩한 교회를 건설하는데 전력하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경건, 신앙생활의 실천과 도덕생활의 순결유지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다. 이 노력과 수고의 감화는 오늘의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그는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호리도 양보가 없었다. 위대한 목회자가 남기고 간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확립한 목회의 발자취,

그가 남기고 간 위대한 신앙과 생활의 감화,

그가 세운 말씀의 교회,
 그가 수고한 진리 투쟁,
 그가 배격한 이단과 교회 내의 부도덕과 죄악,

그가 바친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가 세운 목회의 원리와 그 방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재현하고 싶다.

신앙과 생활이 순결한 나의 교회, 우

리 교단을 세워보자.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지상교회를 세워보자.

칼빈의 시대는 칼빈의 시대대로 일마나 심각한 문제와 죄악상이 많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강행하기에 얼마나 시대적 압력과 오해와 반발이 많았겠는가? 그러나 칼빈과 그의 신앙의 동지자들은 모든 난점을 오직 기도와 신앙과 말씀의 권위로써 극복하고 승리하여 중세기의 교회개혁과 재흥을 완성하였다. 이 시대는 또한 이 시대대로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배격해야 할 어리가지의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것과 비 기독교적인 것, 비양심적인 것, 비 신앙적인 것, 비 성경적인 것, 심지어 비 인간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안에서 용납하지 않고 배격하고, 제거하고, 순결한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할 때 곡해와 비난과 반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동지들 사이에서도 오해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진리대로 순종하여 실패한 자 없었다.

진애하는 졸업생 여러분들! 우리의 개혁운동에는 칼빈시대 못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앙과 생활이 순결한 교회건설을 위하여 어떠한 비난, 오해, 반대가 있더라도 백절 불굴 젊은 피와 땅과 생명을 주앞에 쏟아 부쳐 주기 바란다.

칼빈은 불순한 교회는 하나님께 대항 음모단이라고 하였다. 음모단이 아닌 순결한 교회건설에 귀한 생을 바쳐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앞날의 목회생활에 찬란한 개혁주의 교회가 건설되어 온 세상에 칼빈 못지 않게 개혁주의 신앙에 열매를 나누어 주는 여러분의 앞날의 목회생활이 되어 주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남교회 목사>